

'봄철 감염병 대비 개인위생 철저'

군산시 보건소, '수두·유행성이하선염·홍역 3대 예방수칙' 준수 강조

군산시 보건소는 개학을 앞두고 봄철 유행하는 감염병의 집단 발생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 접종과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봄철 유행 감염병으로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불거리), 홍역이 있으며 2023년 군산시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수두는 111건, 유행성이하선염은 50건 발생하였다.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하는 수두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급성 감염질환이다. 병행하게 되면 급성의 미열과 함께 온몸이 가렵고 발진성 수포가 발생한다.

주로 수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미세 침방물)로 감염되거나 수두

환자와의 직접 접촉, 수두 물집에서 나오는 진물 등을 통해 전염된다. 발진 1~2일 전부터 전염력이 있으므로 수포가 마르고 가파가 생길 때까지 환자는 격리치료 받아야 한다.

예방은 생후 12~15개월에 수두 예방 접종(1회)을 통해 해야한다.

불거리라 불리는 유행성이하선염은 양쪽 귀 앞에 있는 이하선에 부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다.

평균 16~18일의 잡복기 후 발열, 한쪽 혹은 양쪽 이하선의 종창 혹은 통증이 특징이다. 주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후 12~15개월 만 4~5세에 2회의 MMR 예방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 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발진성 감염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홍역 환자가 나날이 증가 추세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발열, 전신 발진, 구강 내 병변이 나타난다.

특히 홍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2차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2~18이나 된다.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는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예방접종을 외우하고 봄철 유행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 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의산시가 지난 3일 의산고등학교 신입생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시티투어를 진행했다.

고교 신입생, 의산에 매료된다

시, 고향이 타지역인 신입생 130여명 대상 시티투어 진행

의산시가 지난 3일 의산고등학교 신입생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시티투어를 진행했다.

의산고등학교 신입생은 고향이 대부분 타지역이기에 의산시가 생소한 학생들이 많다. 이에 의산시와 의산고등학교가 소통해 학생들에게 의산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오후에는 진행된 시티투어는 미륵사지, 고스락, 교도소세트장을 방문했다.

또한 의산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버스 마다 배치돼 짧은 시간이지만 의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티투어에 참여한 한 신입생은 "입학전까지 의산을 한번도 와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며 "평소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데 의산이 왜 사진 맞집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의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의산시가 가진 역사와 관광자원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의산만의 색(色)을 가진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산=이재춘 기자

의산시, 2024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의산시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접계가 없는 등지역은 농신유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이 0.5㏊ 이하이면서 농촌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30만 원을 지급 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하고 진흥·비진흥, 논·밭에 따라 단기를 적용해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매년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대상자는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업·농촌 공익을 위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영농 폐기물 적정처리 △미래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일자 작성 등 17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자는 준수 사항별로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고, 미이행이 많은 경우 직불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가 삭제돼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며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 인은 직불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산=이재춘 기자

의산시, '치킨로드' 이끌 사업자 모집한다

예비창업자, 개인·법인 사업자 대상… 4개소 29일까지 모집

의산시가 중앙동에 닦여리로 활력을 불어넣을 '치킨로드 조성사업'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치킨로드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동 구도심 일대에 닦여리 전문점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의산시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닦여리 기업이자 항로기업인 (주)하림, 의산 계회림 운영기관인 (주)엔비아론, 중앙동 치킨로드 상생협의체가 참여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닦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요건

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번 사업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접

(063-859-532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번 사업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접

진적으로 사업자를 확대 모집해 구도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산시는 성공적인 치킨로드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창업교육 예비 창업자 간담회, (주)하림·(주)엔비아론·중앙동 상생협의체와 협약 체결 등을 진행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이기에 기대가 크다.

/의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4년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군산시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공동위원장 강임준·홍용승) 회의가 4일 군산시청 산하에서 열렸다.

군산시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는 공공·민간부문을 포함하여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는 2024년부터 새롭게 구성된 10기 위원이 참여한 첫 번째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결과 보고 및



심의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6까지 4년간 시행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첫 번째 해인 지난 2023년의 사업 결과 심의를 주요 안건

으로 다뤘다. 홍용승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사회복지의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미움으로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대표협의체가 군산시 복지에 미중립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는 시작과 마지막 모두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이야와 청년, 가정과 지역 모두 함께 하는 통합적 사회보장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의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드림카페' 사업 추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산시민이 원하는 카페에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드림카페' 사업이 추진된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드림카페'는 △우울증,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군산시민 누구나 △내가 원하는 군산시 어느 카페에서나 △정신건강 검사(우울증·우울증·스트레스 측정 등)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민약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결과가 나왔을 경우, 지속 상담 진행,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치료비까지 지원해준다. 또 우울증 예방교육 및 위예·아로마 테라피 등 집단프로그램도 참여희망자들을 모집해 운영 계획이다.

상당 신청 및 문의는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63)451-0863 또는 아래의 QR코드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봄철 해빙기 집중 유총구제 활동 실시

군산시 보건소가 3월 첫 주부터 집중적인 유총구제 방역 활동을 시작한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매개 모기 및 위생 해충에 의해 전파되는 밀리고리, 일본뇌염과 같은 감염병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서다.

유총구제란 모기가 산란·성장해 성충으로 부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모기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모기 유총 1마리를 잡는 것은 성충 500~7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으며 성충 구제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특히 기후변화로 모기 등 해충의 활동 시기가 빨리져 봄철 방역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보건소는 방역반을 편성해 모기 유총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대형·복합건물의 지하공간(지하실 등) 및 물웅덩이(정화조, 집수성), 하수구 등 방역소독 취지지역에 집중적인 유총구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의산 왕궁리 오층석탑

의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의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굴되었다.

1층 오개석 상면과 기단부 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의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암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의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의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층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제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